

구술자료 상세목록

사업명	미추홀시민기록단 ‘미추홀 송의목공예마을’ 기록				
구술자명	윤덕환	면담자	김순옥		
면담장소	명진공예사	면담지원	정지선		
면담 일시	2022년 9월 2일	회차	1	시간	54분 10초
자료번호	MichuholCA-08-00001594				
구술 개요	인천에서 태어나 먹고살기 어려워 중학교 졸업한 후 목공일을 시작함. 직장 생활을 하며 기술을 배우다가 23살 때 개인 사업을 시작함. 송림동에서 선배의 일을 이어받아 하면서 ‘명진공예’ 라는 상호를 가짐. 로구로 작업을 주로 함. 오성체육, 신한 다이아몬드, 스타벅스 등 많은 일을 해옴. 만드는 것을 작품이라 생각하지 않고 상품이라 생각함. 앞으로 더 열심히 건강하게 일할 계획임.				
주요 색인어	둘째, 인천, 일, 목공, 목선반, 가구, 목상자, 송의동, 상호, 가족, 멀바우, 수입, 나무, 접착제, 기계, 로구로, 목선반, 배다리, 극장, 신문, 오성체육, 홍보테크, 신한 다이아몬드, 스타벅스, 원형 계단, 엄지 손가락, 상품, 비전, 공예 협회, 건강, 술, 목 디스크, 계획, 힘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어린시절			00:00:25~ 00:05:10	▷ 활동기획안 ▷ 구술활용동의서 ▷ 개인정보동의서 ▷ 음성파일 ▷ 녹취문	
- 먹고살기 어려워 중학교 졸업하고 목공예를 시작함. - 3남 1녀, 둘째임 - 인천 도원동에서 태어나 용현동에서 오래 살았고 현재는 만석동에 거주. - 생년월인은 59년 6월 5일 - 어렸을 때 저녁때면 친구들과 동네에서 놀았던 추억이 있음					
2. 목공 사장님			00:05:11~ 00:07:47		
- 23살 때부터 개인 일을 함. - 용현동에서 기술을 배우기 위해 직장 생활을 함. - 목선반을 하다가 일거리가 없어서 가구 짜는 것을 어깨너머로 배움. - 송의 목공예 마을에서 선배가 있었던 자리에서 시작해 송림동에서 ‘명진공예’ 라는 상호를 가진 가게를 인수받아 15년 동안 운영					
3. 지인들, 형님			00:07:48~ 00:09:12		
- 선배가 거래처도 많고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가게를 이어받음.					
4. 가족이야기			00:09:13~ 00:09:53		
- 아내, 쌍둥이 아들 둘있음.					

- 36살에 결혼하고 4년만에 아이를 가짐.		
5. 나무이야기		
- 인도네시아산 나무, 멀바우. 멀바우로는 야구 방망이를 만듦. - 고무나무로 원형계단을 함. - 스프로스 소나무로 제비집 같이 생긴 것을 만듦. - 자작 합판으로 만든 나무 상자	00:09:54~ 00:12:51	
6. 작업 접착제		
- 들여온 원목은 기계를 이용해 규격대로 잘름. - 도료는 칠 - 우리나라 접착제는 굳는 게 더더 미국산 접착제(타이틀 본드) 사용 - 옛날 접착제 보다 요즘 접착제가 더 빨리 굳음.	00:12:52~ 00:15:16	
7. 기계이야기		
- 테이블 쇼, 자동 대패, 수동 대패, 원형도기, 애치센다, 코너로 킹, 드릴, 가끝, 재단비 등 10여 가지의 크고 작은 기계가 있음. - 인천에 목공기계 파는 곳에서 삼. - 기계들은 국산	00:15:17~ 00:19:54	
8. 목선반 로구로		
- 20살 이전부터 로구로를 함. - 로구로는 일본어로, 목선반이라는 뜻이다. - 일본어로 된 기계 이름들이 많음.	00:19:55~ 00:22:47	
9. 배다리 송림동		
- 송림동이 재개발되면서 이쪽으로 옴. - 이전 후 사업체가 늘어나 일이 많아졌다. - 송림동엔 목공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음. - 85년도부터 배다리 공예거리에서 가구 손잡이 납품을 5년 이상 했음. - 옛날에 제물포역에서 하인천까지 전철 타고 다녔음.	00:22:48~ 00:28:53	
10. 인천 옛 극장	00:28:54~ 00:29:54	
- 인천에 극장이 10개가 넘었음.		
11. 생애 과거	00:29:55~ 00:30:23	
- 중학교 때 신문돌리는 일을 함.		
12. 오성체육	00:30:24~ 00:31:01	
- 오성체육과 거래를 많이 함.		
13. 홍보테크	00:31:02~	

- 홍보테크 업체에 군납함.	00:31:47
14. 신한 다이아몬드	00:31:48~
- 신한 다이아몬드 일 10년 넘게 함.	00:32:25
15. 스타벅스	00:32:26~ 00:35:14
- 스타벅스 벽면 장식 인테리어 함. - 사람과 사람 사이, 삶 속에서의 갈등 없었음.	
16. 을지로 수포교	00:35:15~
- 을지로 수포교 일을 하려다가 일이 커서 포기함.	00:35:34
17. 지인들, 형님(2)	00:35:35~ 00:38:18
- 선배님이 몸이 안 좋으시고 연세도 있으셔서 가게, 기계 시설, 전기 시설, 자재, 거래처까지 천만 원에 넘겨받음.	
18. 현재 일, 미래 일	00:38:19~ 00:40:00
- 힘 닿는 데까지 일을 할 생각 - 작품이라 생각 안하고 상품이라 생각함.	
19. 가족이야기(2)	00:40:01~ 00:40:29
- 자식들이 목공 사업과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어서 가게를 물려 받으려 하지 않음.	
20. 엄지 손가락	00:40:30~
- 목공일 하면서 엄지손가락 두 개 잘린 게 아픔.	00:41:14
21. 현재 일, 미래 일(2)	00:41:15~ 00:44:32
-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어디에 이렇게 해놓은 게 내 자부심이다 하는 건 없음. - 앞으로 전망은 비전이 좋을 것.	
22. 지인들, 형님(3)	00:44:33~ 00:47:11
- 승의 목공예 마을 사람들과 원래부터 아는 사이. - 목공예 전문인 모임은 없고 옛날에 공예 협회가 있었는데, 중간에 빠졌음.	
23. 건강이야기	00:47:12~ 00:49:54
- 한 달 전, 건강을 위해 술을 끊음. - 목 디스크가 있음.	
24. 현재 일, 미래 일(3)	00:49:55~ 00:50:33
- 누가 만들어 달라는 거 만들어주니까 불만족은 없음. 불만족하면 안 하면 됨. -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계획	



25. 형님들, 지인(4)	50:34~51:	
- 내 방식대로 하는 것	25	
26. 나무이야기(2)	51:26~54:	
- 내 몸의 두 배의 무게가 나가는 목재를 들고 옮김.	10	